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 완주

운주초등학교 4학년 강OO

나의 고향인 완주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들이 있다. 완주의 자연 경치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그 중 대둔산은 완주의 대표적인 산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나 역시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대둔산을 자주 방문했다. 대둔산에 오르다 보면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곳이 나온다.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 올라가다 보면 대둔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빨간 구름다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서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스릴이 넘친다. 내 눈앞에 구름이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면 마치 솜사탕에 둘러싸인 기분이 들어 저절로 웃음이 난다.

완주에는 여러 계곡이 있어 주변에 수영장과 펜션이 많다. 나의 부모님께서도 완주군 운주면에서 숙박업을 하신다. 여름에는 펜션과 수영장을 운영하시고, 가을에는 감을 수확하셔서 겨울에 완주의 특산품인 흑곶감으로 파신다. 나도 부모님을 도와 곶감 작업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직접 해 보니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완주에서 놀거리와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다.

완주에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체험학습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아주 많다. 최근 학교에서 완주군 고산면에 새로 생긴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체험관에서 화재 및 지진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 방법, 교통안전 등 여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대피상황이 생기면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안전체험관 바로 옆에 위치한 창포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우리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창포비누와 창포샴푸도 만들어 보았고, 신선한 딸기와 설탕으로 맛있는 딸기청도 만들어 보았다. 몸에 좋은 비누, 샴푸와 맛있는 딸기청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 매우 뿌듯했다.

우리 학교는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그래서 매년 농촌유학 체험학습을 떠나는데 올해는 완주의 용진두억마을에 있는 숲놀이터로 체험학습을 갔다. 숲놀이터로 향하는 길에는 드넓은 용진저수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랐다. 1학년 후배 중 한 명이 악어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버스 창밖으로 햇빛에 반짝이는 저수지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숲놀이터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짙라인과 밧줄그네, 그물놀이터, 나무 오르기 체험기구 등이 있었다. 기구들을 보니 어서 빨리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밧줄타기에 도전했다. 밧줄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무서웠지만, 친구와 함께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다. 짙라인은 수동으로 작동되는 기구였는데 5학년 언니들이 밧줄을 잡아 당겨줘서 빠른 속도로 즐겁게 탈 수 있었다. 친구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놀이터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체험학습 시간이 너무 소중한 행복했다.

완주에는 이렇게 놀거리들도 많지만 언제든지 책을 읽고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도서관인 꿈채움 도서관에 다녀온 적이 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이 정말 쾌적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해 알려주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책의 주소를 뜻하는 ‘청구기호’라는 단어이다. 내가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서는 책의 청구기호를 살펴보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다시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여러 권의 책을 빌려보고 싶다.

완주는 살면 살수록 완벽한 동네라는 생각이 든다. 맛있는 특산품, 멋진 자연환경,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까지. 완주 사람들은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고향인 완주가 정말 자랑스럽고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계속 멋진 완주에 살고 싶다.